

# 月經의 開始와 閉止에 關與하는 天癸의 東西醫學的 考察

金 恩 基 · 成 宇 鏞 · 宋 京 燮\*

## ABSTRACT

### Study on Chungye Relavant to Menstration Starting and Pause Compared by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Eunki Kim, O.M.D. Ph.D., Wooyong Seong, O.M.D., Kyungsup Song, Ph.D.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National Medicine, Center, Seoul, Korea*

This study is to review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s about Chungye and endocrinologic literatures about menstration, pregnancy, menopause and male-sex cycle.

The conclusions obtained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Naegyung, Chungye exists in both male and female, it makes human fertile. It comes with starting menstration and is exhausted with menopause.

Second, it was said that the name of Chungye originated in Chun of Chunjinjiki(energy of genuine cosmos) and Gye of Imgyejisu(water of Imgye).

---

\*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 본 논문은 1995년 국립의료원 임상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짐

Third, some authors advocated that Chungye is menstration. But it was criticized by other authors and it is not accepted at the present time.

Forth, there was an assertion that Chungye is Eumjung. The assertion has been developed as the hypothesis that Chungye may be a endocrinologic substance relavant to menstration and pregnancy.

Fifth, there was an interpretation that Chungye is FSH. But this interpretation might be unreasonable if it is based on the results observed by endocrinologic researches.

According to the current endocrinologic researches, Chungye may be GnRH, when Chungye is the necessary endocrinologic substance to menstration and pregnancy, exists in male and female and is exhausted with menopause.

## I. 緒論

女性은 生理面에서 男性과 相異한 점이 많다. 이것은 女性의 두가지 固有한 性器의 機能과 關聯이 있으니 그 하나는 月經이고 다른 하나는 受胎이다. 이와 같은 胞宮의 機能은 衝任兩脈과 밀접한 關係가 있다. 衝任兩脈은 모두 胞宮에서 發源하며 宋 등<sup>6,19,23)</sup>은 衝脈은 血海를 이루고 任脈은 胞宮을 主管한다고 하였고, 또 月經病이나 胎前病은 어느 것이건 衝任兩脈의 機能失調에 起因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女性生理에서 衝任兩脈은 諸家들이 대단히 중요시하여 이에 대한 研究가 활발히 進行되어 왔다. 그러나 天癸에 대하여는 그다지 많은 研究가 되어있지 않다.

內經<sup>8)</sup>에서는 女子는 7세에 腎氣가 盛하고, 14세에 天癸가 이르고 衝任兩脈의 氣血이 充盛하여 月經이 排出된다고 하였고, 21세가 되면 腎氣가 平均하여 모든 機能이 長極하여지고, 49세에 天癸가 絶하고 衝任兩脈의 氣血이 衰弱하여지며 月經이 폐지되고 生殖能力이 消失된다 하였다. 이에 의하면 女性生理에는 腎氣, 衝任脈 및 天癸의 작용으로 月經, 妊娠 및 分娩이 可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男性의 性週期에 대하여 內經<sup>8)</sup>에서는 8세에 腎氣가 實하고, 16세에 腎氣가 盛하고 天癸가 至하여 精氣溢瀉하여 受胎가 可能해지며, 40세에 腎氣가 衰하고, 56세에 肝氣가 衰하고, 天癸가 竭한다 하였다.

이와 같이 天癸는 女性의 月經開始와 閉經에 關與할 뿐 아니라 男性의 精氣溢瀉에도 關與하는 것으로 記錄되어 있으나, 女性性週期의 主體는 衝任에, 男性 性機能成熟의 主體는 腎精에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內經<sup>8)</sup>에 의하면 天癸란 腎氣가 充實한 다음 이르는 것이며 男女 모두에게 있고, 天癸가 至하여야 生殖能力이 생기며, 女性은 閉經期에 竭하고, 男性도 天癸가 竭하면 性機能이 원활하지 않는데 이 때는 56세 前後가 된다. 이를 보건데, 天癸는 男性과 女性의 性生理와 妊娠能力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宋<sup>6)</sup>은 天癸라는 말의 週期성을 강조하여 性週期의 變化가 內分泌의 機能과 밀접한 關係가 있음을 結付시켜 韓醫學의 性生理說을 天癸의 機能으로 解釋하였다.

이에 東洋醫學의 文獻에 收錄된 天癸에 관한 資料를 정리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內分泌學的 知識을 참고로 그 類似點과 差異點을 밝혀 天癸의 역할과 重要性을 闡明해 보고자 한다.

## II. 文獻

### 文獻 1. 素門 上古天真論<sup>8)</sup>

<帝曰>人年老而無子者 林力盡耶? 將天數然也?

<岐伯曰>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

三七 腎氣平均 故眞牙生而長極

四七 筋骨堅 髮長極 身體盛壯

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六七 三陽脈衰於上 面皆焦 髮始白

七七 任脈虛 太衝脈衰小 天癸竭 地道不通 故形壞而無子也

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

二八腎氣盛 天癸至 精氣溢瀉 陰陽和 故能有子

三八 腎氣平均 筋骨勁強 故眞牙生而長極

四八 筋骨隆盛 肌肉滿壯

五八 腎氣衰 髮墮齒槁

六八 陽氣衰竭於上 面焦 髮鬢頰白

七八 肝氣衰 筋不能動 天癸竭 精少 腎臟衰 形體皆極

八八 則齒髮去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故五臟盛 乃能瀉 今五臟皆衰 筋骨解墮 天癸盡矣 故髮鬢白 身體重 行步不正 而無子耳.

### 文獻 2. 婦人良方大全<sup>23)</sup>

月經序論

岐伯曰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天謂天真之氣 癸謂壬癸之水 故云天癸也 然衝爲血海 任主胞胎 二脈流通 經血漸盈 應時而下 常以三旬一見 以像月盈則虧也 若遇經行 最宜謹慎 否則與產後症相類

精血篇論

飲食五味 養骨髓肌肉毛髮 男子爲陽 陽中必有陰 陰中之數八 故一八而陽精升 二八而陽精溢 女子爲陰 陰中必有陽 陽中之數七 故一七而陰血升 二七而陰血溢 皆飲食五味之實秀也 方其升也 智慮開明 齒牙更始 髮黃者黑 筋弱者強 暨其溢也 凡充身體手足耳目之餘 雖針芥之歷 無有不下 凡子形肖父母者 以其精血 嘗於父母之身 無所不歷也.....然雌鳥牝獸 無天癸

而成胎何也 鳥獸精血往來尾間也 精未通而御女以通其精 則五體有不滿之處 異日有難狀之疾 陰已痿而思色以降其精 則精不出而內敗 小便澁而爲淋精 已耗而復竭之 則大小便牽痛 愈痛則愈便 愈便則愈痛 女人天癸已至 踰十年無男子合則不調 未踰十年思男子合亦不調 不調則舊血不出 新血誤行 或潰而入骨 或變而爲腫 後雖合而難子 合多則瀝枯 虛人產衆 則血枯殺人 觀其精血 思過半矣

### 文獻 3. 婦人規<sup>22)</sup>

<上古天真論>曰: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盖天癸者 言後天之陰氣 陰氣足而月事通 是卽所謂月經也. 正以女體屬陰 其氣應月. 月以三旬而一虛 經以三旬而一至 月月如期 經常不變 故謂之月經 又謂之月信 夫經者常也 一有不調 則失其常度 而諸病見矣. 然經本陰血 何臟無之? 惟臟腑之血 皆歸衝脈 而衝爲五臟六腑之血海. 故經言太衝脈盛 則月事以時下 此可見衝脈爲月經之本也.

### 文獻 4. 女科經綸<sup>19)</sup>

女子天癸之至名月信論

陳良甫曰: 經云女子二七而天癸至 天謂天真之氣 癸謂壬癸之水 壬爲陽水 癸謂陰水. 女子陰類. 衝爲血海 任主胞胎 二脈流通 經血漸盛 應時而下 天真氣降 故曰天癸. 常以三旬一見 以像月盈則虧 不失其期 故名曰月信.

女子月經非天癸之辨論

馬雲台曰: 經云女子二七天癸至 天癸者 陰精也. 腎屬水 癸亦屬水 由先天之氣畜極而生 故謂陰精爲天癸. 王冰以月事爲天癸者 非也. 男女之精 皆可以天癸稱. 今王注以女子之天癸爲血 則男子之天癸亦爲血耶! 男女當交媾之時 各有精. 而行經之際 方有其血; 未聞交媾時 可以血言也. 至云精開衰血 血開衰精者 亦非. <靈樞>云: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謂精者是也. 但女子之精 以二七而至; 而其月事 亦與此時同 其後也

慎齊按：已上二條 序女子之月水即爲天癸；又辨天癸不可以月信名也。

婦人天癸過期不止屬血有餘

許叔微曰：婦人天癸已過期，經脈不勻；或三月，四月不止，或一月再至，腰腹疼痛。經云七損八益，爲女子七數盡，而經不依時者，血有餘也，不可止之。但令得依時，不腰痛爲善，宜服當歸散。

#### 文獻 5. 濟陰綱目<sup>4)</sup>

良方論曰 岐伯云 女子七歲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天謂天真之氣 癸謂壬癸之水 故云天癸也 然衝爲血海 任主胞胎 二脈流通 經血漸盈 應時而下 蓼以三旬一見 以象月盈則虧也

(注)任脈主任一身之陰血 太衝屬陽明 爲血之海 故穀氣盛 則血海 滿而月事以時下 天真天一也 天一之氣升而爲壬 降而爲癸 壬陽而癸陰也 三旬一見者 爲一小會之週天 此其常也 然有大會中會之不同 故又有三月一行

#### 文獻 6. 醫宗金鑑<sup>20)</sup>

天癸月經之原

先天天癸始父母 後天精血水穀生 女子二七天癸至 任通衝盛月事行。

注)先天天癸 爲腎間之動氣 乃稟自父母 資其始也；後天精血 爲水穀之化 得之形成之後 資其生也。經曰：女子一七而腎氣盛 謂腎間動氣盛也。二七而天癸至 謂先天天癸水中之動氣 至于女子胞中也。衝爲血海 任主胞胎。衝任皆起于胞中 所以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能有子也。

#### 文獻 7. 婦科證治<sup>18)</sup>

更年期

一般發生于45-55歲，是婦女由成熟期轉入老年期的過渡階段。〈內經〉云：‘七七，任脈虛，太衝脈衰少，天癸竭，地道不通，故形壞而無子也。’此時體內的任脈漸虛，太衝脈衰少，‘天癸’也逐漸減退，卵巢功能活動由活躍

狀態變爲衰退狀態。這一階段可出現月經週期紊亂，少數婦人尚可出現一紫全身的反應，如面部潮紅，心悸，頭痛，血壓波動等症狀。

絕經期

此期‘天癸’由減退而至竭止，卵巢功能進一步衰退，月經停止，并出現生殖器官逐漸萎縮，不再受孕。

祖國醫學對女子一生各階段，由生長發育到發育成熟而后逐漸衰退的生理過程，作了系統而概括的描述。其中特別強調了‘腎氣’的充盛，天癸的產生和衝，任二脈的通盛是生長發育的重要物質基礎。由于人體是一介有機的整體，衝任二脈與天癸的功能活動，又需依賴臟腑氣血的充養，故臟腑氣血的盛衰，與生殖器官功能密切相關，年在二七，三七，形體充，氣血旺，衝任二脈經氣充盈，故‘月事以時下’，七七，則形體不足，臟腑氣血虧損，‘任脈虛，太衝脈衰少，天癸竭，地道不通。’由此可見，各階段的生理功能，對經，孕，胎，產有着重要的影響。

#### 文獻 8. 女科仙方<sup>15)</sup>

經云：女子七七而癸絕。有年未至七七而經水先斷者 人以為血枯經閉也，誰知是心肝脾之氣鬱乎。使其血枯，安能久延于人世？醫見其經水不行，妄謂之血故耳。其實非血之故，乃經之閉也。且經原非血也，乃天一之水，出自腎中，是至陰之精而有至陽之氣，故其色赤紅似血，而實非血，所以謂之天癸。世人以經爲血，此千古之誤，牢不可破。倘果是血，何不名之曰血水而曰經水乎？古昔聖賢創呼經水之名者，原以水出于腎，乃天干之化，故以名之。無如世人沿襲而不深思其旨，皆以血視之。然則經水早斷，似乎腎水衰涸，吾以爲心肝脾氣之鬱者，蓋以腎水之生，原不由于心肝脾，而腎水之化，實有關於心肝脾。使水位之下，無土氣以承之，則水濫滅火，腎氣不能化；火位之下，無水氣以承之，則火炎燬金，腎氣無所生；木位之下，無金氣以承之，則木妄破土，腎氣無以成。守心肝脾有一經之鬱，則其氣不能入于腎中，腎之氣即鬱而不宣矣。況心肝脾俱鬱，即腎氣真足而無虧，尚有餘而難吐之勢。矧腎氣本虛，又怎能盈滿而化經水外瀉耶？經曰 亢則害，此之謂也。此

經之所以閉塞, 有似乎血枯, 而實非血枯耳. 治法必須散心肝脾之鬱, 而大補其腎水, 仍大補其心肝脾之氣, 則精溢而經水自通矣.

### III. 考察

天癸의 癸는 十干中의 하나로, 宋 등<sup>4,6,19,23)</sup>은 天干과 五行을 配合하는 理論에 依據하여 壬癸北方水라 하였다. 宋<sup>6)</sup>은 腎은 水이므로 眞陰眞陽의 意味를 부여하여 內經의 '天癸가 至하다'를 腎機能이 旺盛하게 되며 性生理의 週期性이 나타나게 된다는 運氣論의 意味와 臟腑生理上의 意味를 부여하였다.

天癸의 辭典의 풀이를 金<sup>1)</sup>은 '男女의 腎精'이라 하였으며, <素門上古天真論>을 引用하여 '天癸에는 성호르몬과 類似한 작용이 있다' 하였다. 謝<sup>16)</sup>는 '女血男精의 總稱'이라 하고 '<素門上古天真論>에 男子는 16세에 天癸가 이르고 女子는 14세에 天癸가 이르는 것으로 보아 생각컨데 오늘날은 女子의 月經을 가르켜 天癸라 한다' 하였다.

韓醫學 文獻中 天癸에 관한 가장 오래된 記錄은 <內經> 上古天真論에 있다. 文獻 1은 男女의 性週期를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後代 醫家들은 이에 根據하여 자신의 論理를 설명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天癸의 정의는 이 文獻에 의존한다.

文獻 1의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 二七而天癸至 任脈通 太衝脈盛 月事以時下 故有子'를 보면 天癸는 腎氣보다 늦게 이르는 것으로 性系統의 機能形成過程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劉<sup>26)</sup>는 이過程에 天癸를 제외하고 腎과 衝任의 順序로 설명하였으나 文獻上으로는 衝任은 天癸와 함께 14세前後에 그 역할을 發하는 性系統의 機能이라 해야 할 것이다.

男性의 性週期를 살펴보다라도 八歲에 腎氣가 實해지고 16세에 天癸가 이르러 精氣가 넘쳐흐르니 陰陽이 和하여 生殖能力이 생긴다 하였다.

또 女子는 七七歲에 任脈이 虛하고 太衝脈이 衰少하여 天癸가 竭하니, 이에 月經이 그치고 生殖能力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즉 天癸가 至하

므로써 月經과 生殖能力이 생기고, 天癸가 竭하므로써 月經이 그치고 生殖能力도 소실되는 것이다.

男子에게도 天癸는 生殖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天癸가 至하여 生殖能力이 생기는 것은 女子와 같으나, 天癸가 竭하여도 精少일뿐 無子라고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부터 天癸는 生殖能力을 생하는데는 不可缺한 것이고 月經을 持續하게 하는 요소로, 女子는 月經이 그침으로써 그 生殖能力을 잃기 때문에 天癸竭과 함께 無子이고, 男子는 본래 月經을 하지 않기 때문에 天癸竭이 生殖能力을 소실시키지는 못하고 精少로 그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天癸竭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腎이 水를 주하여 五臟六腑의 精을 거두어 藏하니 五臟이 盛하여 能히 瀉할 수 있으며 五臟이 衰하니 筋骨이 解墮하여 天癸가 다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腎의 機能이 盛함에 五臟이 盛하고 五臟이 衰함에 天癸가 다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杜<sup>3)</sup>는 文獻 1을 精의 작용을 개괄한 것이라 여기고, 이 性週期에 따른 變化를 精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內分泌 機能을 도입하여 內分泌 호르몬들을 精에 비유하였다. 內分泌 호르몬의 變化를 精의 變化로 본다면, 月經開始와 함께 分泌되고 閉經과 함께 分泌가 줄어드는 호르몬을 天癸라 할 수 있다는 推論도 可能하겠다.

文獻 2를 살펴보면, 陳<sup>23)</sup>은 <大全>에서 '天은 天真之氣를 이르고 癸는 壬癸之水를 이르니 故로 天癸라 한 것'이라 하였다. 또 이르기를 '새나 짐승의 암컷은 天癸가 없어도 成胎하니, 이는 精血이 往來尾間함'이라 하였다. 이에 의하면 有子의 필수 조건은 天癸보다 男子의 陽精과 女子의 陰血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陳<sup>23)</sup>이 말한 天癸는 月經이므로 天癸가 月經이라는 假說이 成立하지 않으면 이 말은 옳다고 하기 어렵다.

文獻 3은 婦人規를 引用한 것으로, 張<sup>22)</sup>은 '天癸를 後天之陰氣라 하고 陰氣가 充足하여야 月事가

通하니 이는 卽 所謂 月經이다'라 하였다. 이는 天癸를 月經으로 보았고 이는 月經이 後天陰氣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羅<sup>22)</sup>는 그 注에서 天癸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見解를 서술함에 天癸란 月經도 아니고 精血도 아니라고 主張하였다. 그는 <內經講義·詞解>註釋中 '天癸란 腎臟에서 生하는 一種의 生殖機能을 促進하는 物質이다', <景岳全書·陰陽篇>解說中 '先天無形之陰陽 則陽曰元陽 陰曰元陰.....元陰者 卽無形之水 以長以立 天癸是也. 強弱系之 故亦曰元精', 또 張氏<類經>按語中 '天癸之義 諸家俱卽以精血爲解 然詳玩本篇謂 女子二七天癸至 月事以時下; 男子二八天癸至 精氣溢瀉 是皆天癸在先 而後精血繼之. 分明先至 後至. 各有其義 焉得 謂天癸卽精血 精血卽天癸? 本末混淆 殊失之義. .... 故天癸者 言天一之陰氣耳 氣化爲水 因名天癸. 其在人身 是爲元陰 亦曰元氣. 人之未生 則此氣蘊于父母 是爲先天之元氣; 人之既生 則此氣化于吾身 是爲後天之元氣. 是氣之初生 眞陰甚微 及其既盛 精血乃旺. 故女必二七 男必二八而後天癸至 天癸既至 在女子則月事以時下; 在男子則精氣溢瀉 蓋必陰氣足而後精血化耳. .... 而天癸者 其卽天一之氣乎 可無疑矣.' 라는 引用文을 들어 天癸가 經水라는 것에 반대하였다. 특히 <內經>에 명확히 女子는 二七에 天癸가 至한 이후에 任脈이 通하고 太衝脈이 盛하여 月事以時下하고 七七에 天癸가 竭하여 月經이 停止한다고 하였다. 男子는 二八에 天癸가 이르고 精液이 充滿하여 外泄하며 八八이후에 天癸가 먼저 다하면 일반적으로 生殖能力이 없어진다고 記錄되어 있다. 이는 天癸가 먼저 體內에 출현한 然後에 月經이나 精液의 外泄이 있다 하였으니 生殖能力이 있음이다'라고 하여 天癸가 精血과 다르며 이는 一種의 物質이라 생각하였다. 肉眼으로는 볼 수 없는 生殖能力을 촉진하는 體液이라 의심하였다. 이는 杜<sup>3)</sup>의 見解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杜<sup>3)</sup>는 內分泌 物質이라 하였으니 이는 天癸에 대한 최근의 解釋들이다.

文獻 4는 女科經綸으로 天癸가 月經이라는 論理

와 月經이 될 수 없다는 論理를 나란히 比較하고 天癸란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陳良甫의 말을 引用하여 天癸라 이름한 내력을 설명하였는바, '天은 天真之氣를 이름이고 癸는 壬癸之水를 이름인데 壬은 陽水가 되고 癸는 陰水가 되며, 女子는 陰類이니 癸라 하였다. 衝脈은 血海가 되고 任脈은 胞胎를 主하는데 이 二脈이 流通하니 經血이 점차 盛하여 때에 應하여 下하는 것을 天真의 氣가 降하는 것에 비유하여 이름을 天癸라 하였다. 그래서 달의 盈虧를 닮은 것이라 달이 그 盈虧를 어김없이 지키니 月信이라 名한다. 즉 天癸란 위에서 水가 下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니 天癸를 月經으로 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天癸가 月經이 될 수 없다는 馬雲台의 論理를 記錄하고 있다. 馬의 論理는 '天癸는 陰精이다. 腎은 水에 屬하고 癸도 또한 水에 屬하는데 先天의 氣蓄이 極함으로 生하니 故로 陰精을 天癸라 한 것이다. 王水이 月經을 天癸라 것은 그르다. 그 이유인즉 男女의 精을 모두 天癸라 稱할 수 있는데 女子의 天癸는 血이 되고 男子의 天癸도 또한 血이 된다는 말이 된다. 男女가 各其 精이 있다고는 하나 血이 있다고는 하지 않는다. <靈樞>에도 "兩神相搏 合而成形 常先身生 是爲精者"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女子의 精이 二七에 이르고 또 月經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라는 주장이다.

天癸가 月經이 아니고 精이라는 解釋은 최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近來의 書籍에는 대체로 이 觀點에서 天癸를 다루고 있다.

또한 婦人이 天癸가 지나도 계속 月經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月經이 不規則하지만 止하지 않는 것이 血이 有餘하기 때문에 그칠 수 없으니 腰痛이 없으면 좋은 것이라' 하였다. 이를 '血有餘'라 말한 것이 天癸가 竭하여도 血有餘하기만 하면 月經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지 天癸가 竭하지 않아 月經을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49세가 지나도 月經을 하는 경우 病的이 아닌 좋은 현상으

로 보아 閉經이 初經과는 달리 사회, 경제 및 식생활 등의 諸因子와 關係없이 49세경에 오는 것<sup>10)</sup>에 대하여 개인의 건강여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좀더 나아가 이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文獻이라 생각된다.

文獻 5는 <婦人良方大全>을 引用하고 그 注에 '天真은 天一이고 天一之氣는 升하여 壬이 되고 降하여 癸가 된다. 壬은 陽이고 癸는 陰이다'라고 하여, 月經이란 下하는 것이니 水의 壬癸중 壬이라 하지 않고 癸라 했다는 것이다. 이는 <大全>의 天癸가 月經이라는 解釋을 받아들이고 있다.

文獻 6은 天癸란 先天의인 것이니 父母로 부터 받는다는 것이다. 그 註에 이르기를 '先天天癸는 腎間動氣를 이른다' 하였으니 이는 天癸의 또다른 解釋이다. 天癸가 父母로 부터 받은 것이고 資其始라는 것에 焦點을 맞춘 것으로 精血이 後天的인 것과 相對的으로 설명하였으니 精血보다 天癸는 時期的으로 于先한다. 특히 一七에 腎氣가 盛하는 것은 腎間動氣가 盛하는 것으로, 二七에 天癸가 이르는 것은 先天天癸水中의 動氣가 女子胞中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설명하였다. 이 때문에 胞中에서 衝任이 일어나 任脈이 通하고 太衝脈이 盛하여 月事以時下하고 故能有子라 하였다. 이는 腎氣와 天癸 衝任脈이 순서있게 발달하며, 그 相互關係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라 생각된다.

文獻 7에서 孫<sup>18)</sup>은 更年期에 대하여 體內的 任脈이 점점 虛하고 太衝脈이 衰少하여 '天癸'라고 하는 것이 점점 減退하는 것이며 이것은 卵巢의 功能活動이 變化하여 衰退해가는 것이라 하였다. 그 제 1 단계는 月經週期的 紊亂이고 少數의 女性에서 全身的 症狀가 나타나는데 例를 들면 紅潮, 心悸, 頭痛 및 血壓이 一定치 않은 것 등이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閉經期란 것은 '天癸'가 減退하여 竭함으로 말미암아 卵巢功能이 점차 衰退하여 月經이 停止된 것이며, 生殖器官이 屢차 萎縮되어 다시는 妊娠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孫<sup>18)</sup>은 天癸와 卵巢機能을 同一視하여 天癸竭을

卵巢功能이 衰退하여지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精을 內分泌 호르몬에 비유하고자 한 杜<sup>3)</sup>의 見解와 天癸를 陰精이라 한 見解<sup>13,14,21)</sup>를 합친 進展된 解釋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叢<sup>24)</sup>과 劉 등<sup>21)</sup>은 腎虛를 閉經의 원인으로 記述하였는데 腎이 五臟六腑의 精을 藏하고 있다가 瀉하는 것인데 五臟이 衰하여 天癸가 다하여 無子라고 한 것과 相通하는 面이 있다. 女子는 七七歲에 腎氣가 漸衰하여 衝任二脈의 작용이 점차 衰하여 天癸物質이 消失된다<sup>17)</sup>하였다.

文獻 8을 살펴보면 早期閉經에 대하여 既存의 解釋과는 다른 解釋을 하고 있다. '血枯가 原因이라 世人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經水는 血이 아니라 天一之水가 腎中에서 自出한 것인데 血로 誤認되어 그러한 것이고, 經斷은 腎水가 化할 때 心肝脾가 關與하는데 心肝脾가 俱鬱하고 腎氣가 鬱하여 不宣한 것이다. 血枯와 類似하지만 사실은 血枯가 아닌 것으로, 治療는 마땅히 大補腎水와 大補其心肝脾之氣 하여야 한다'는 內容이다. 이는 無月經(經閉)의 原因이나 治法과는 상당히 다른 見解를 보인 것으로 早期閉經을 無月經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閉經의 原因도 腎虛와 五臟中 특히 心肝脾의 虛로 보았으니 內經의 五臟이 衰하여 天癸가 다하여 無子라고 한 것과 같다.

天癸는 주로 月經開始期와 閉經期에 言及되어 있다. 內經에 根據하면, 天癸가 至하여 月經이 開始되고 竭하여 閉經이 된다. 男性에서도 天癸가 至하여 生殖能力을 갖지만, 天癸竭이 生殖能力의 消失은 아니다.

최근의 著作들은 天癸를 內分泌領域과 聯關시켜 言及한 것이 많다. 上海中醫學院教材<sup>17)</sup>는 天癸를 生長發育物質이라고 規定하였다. 14세 前後에 天癸가 작용을 開始하되 均等하게 生殖發育作用을 成熟시키지 못하므로, 21세 前後가 되어 左右腎氣가 平均해질 때 腎氣의 發育이 旺盛하다는 것이다. 49세 前後가 되면 腎氣가 점차 衰해지고 衝任二脈의 작용이 점차 衰退되어 天癸도 消失되어간다고 하였

다. 이를 順序대로 보면 閉經에는 腎氣, 衝任脈, 天癸의 順序로 그 機能이 弱해져 마침내 天癸는 消失된다고 解釋할 수 있겠다.

羅<sup>13,14)</sup>는 그의 著書에서 '天癸가 陰精'이라는 馬玄台의 <素門註釋>을 引用하였다. 또 <景岳全書陰陽篇>의 '元陰者 卽無形之水 以長以立 天癸是也 強弱繫之 故亦曰元精'과 見解를 같이하였다. 羅<sup>13,14)</sup>는 無形之水를 血液, 땀, 콧물과 같은 보이는 體液의 相對語로 인식하고, 인체의 強弱에 관계한다는 景岳의 表現을 현대의학에서 설명하는 生殖系統의 內分泌物質과 聯關되었다. 그래서 天癸가 女性의 月經 및 生殖能力과 始終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또 <女科經綸>의 '女子天癸之至名月信論'을 두고 '天癸는 男子에게도 있는 것이다. 男子는 모두 月經이 없고 다만 天癸만 있는데 어떻게 天癸가 月經이 되는가'고 辛辣하게 批判하였다<sup>14)</sup>.

宋<sup>6)</sup>은 內經에 根據하여 天癸와 月經을 구분하였고, 性腺을 刺戟하는 內分泌腺의 機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天癸가 至하는 14세 前後에 난포자극호르몬(FSH)이 機能을 開始하는 점에 착안하여 天癸를 난포자극호르몬(FSH)이라고 解釋하고자 하였으며 21세 前後에 황체형성호르몬(LH)이 機能을 開始한다고 보아 腎氣平均이 두 호르몬의 協力作用이라는 解釋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미 <內經>에 14세 前後에 妊娠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완전성숙난포가 발견되지 않는 시기는 初經後 1년-1년반까지이다. FSH와 LH는 初經때에 이미 둘 다 分泌되기 시작하고 사춘기 전에는 FSH分泌가 LH分泌를 능가하나 사춘기가 되면 LH分泌가 FSH分泌를 능가하게 된다. 다만 시상하부-뇌하수체 축이 완전히 성숙되지 못하여 배란을 가능케하는 分泌曲線을 볼 수 없는 것이다<sup>2)</sup>. 또한 閉經期에는 FSH가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sup>2,7,9,11,12)</sup>.

서양의학에서 妊娠과 月經에 關與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진 것은 황체형성호르몬 유리호르몬

(GnRH), 난포자극호르몬(FSH), 황체형성호르몬(LH), 난포호르몬(estrogen), 황체호르몬(progesteron)등이다<sup>2,5,7,9,12)</sup>. GnRH는 시상하부에서 分泌되는 호르몬으로 시상하부 이외의 장소에서도 발견되지만 그 작용은 명확하지 않다<sup>7)</sup>. FSH와 LH는 뇌하수체에서 estrogen과 progesteron은 난소에서 分泌된다.

미성숙한 동물의 뇌하수체를 성숙된 동물의 뇌하수체에 이식하면 생식선 자극 호르몬을 分泌한다고 하니 이는 性의 성숙이 뇌하수체가 아니라 시상하부의 성숙 즉 중추신경의 성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시상하부 호르몬중 月經週期調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GnRH이다<sup>2)</sup>.

긴장성중추의 신경세포는 estrogen의 양성되먹이 기전을 받아 배란유발을 위한 midcyclic LH surge를 일으킨다. 男子에서는 이 주기성 중추는 태생기부터 안드로젠(androgen)에 의하여 억제되어 있으므로 여성에서처럼 性週期가 없다<sup>2)</sup>.

月經週期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상하부에서 GnRH를 生成分泌하여야 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GnRH에 반응하여 FSH와 LH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만큼 生成分泌하여야 하며, 난소에서는 이에 반응하여 estrogen과 progesteron 및 인히빈(inhibin) 등을 生成分泌하여야 한다. 또한 배란에는 LH와 FSH surge가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생식선자극호르몬의 증가는 생식선부전증 환자에서도 발견되므로 사춘기 성숙은 시상하부의 變化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sup>7)</sup>.

天癸를 妊娠과 月經에 關與하는 內分泌物質이라고 한다면 이는 GnRH, LH 및 FSH중 어느 것일 가능성이 있다. Estrogen과 progesteron은 난소에서 分泌되는데, 腎氣가 盛하고 天癸가 至한 後에 月經을 일으킨다는 衝任脈의 記錄과 類似하다. 또한 estrogen과 progesteron은 男性의 生殖能力에 있어서는 그 역할이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天癸일 수 없다.

성선자극호르몬 分泌의 搏動性은 난소기능을 정



상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GnRH가 지속적으로 또는 다량으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세포에 작용하면 성선자극호르몬 생성 및 분비가 억제되고 따라서 난소가 그 기능을 못하게 된다. 이搏動性分泌는 GnRH, FSH 및 LH에서 관찰되고 GnRH의搏動性에 성선자극호르몬의搏動性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天癸의 癸는 運氣說의 壬癸北方水에서 온 것으로 運氣說은 週期性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GnRH-성선자극호르몬의搏動性分泌는 月經週期동안 變化하며, 여포기동안에는 60-90분 간격으로 한번씩 자주 분비되나 分泌量은 작다. 황체기에는 4-6시간에 한번씩搏動性으로 분비되나 分泌量은 증가한다<sup>7)</sup>. 이週期성과搏動性을 癸의 의미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男性的 사춘기는 FSH에 의한 정세관의 자극과 LH에 의한 레이드히 세포에서의 androgen 생성촉진으로 시작된다<sup>7)</sup>. 이는 '天癸가 至하므로 精氣溢瀉하며 能有子'한다는 內經의 記錄과 부합된다. FSH와 LH의搏動性分泌는 GnRH의搏動性分泌에 반응한 것이다.

閉經期 이후의 여성에서는 estrogen이 감소하여 GnRH의搏動의 빈도를 감소시키고,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작용했던 난소호르몬의 음성되먹이 억제 기전에 의한 영향도 소실된다. 따라서 FSH와 LH의搏動性도 상실되고 分泌도 증가된다<sup>5,7)</sup>.

天癸는 <內經>에서 言及된 바로는 月經 및 生殖能力과 함께 至하고 月經消失과 함께 竭하여야 한다. 또 男性에게도 존재해야 한다. 天癸를 內分泌호르몬의 일종이라 할 때 FSH와 LH의 어느 하나로 생각하기에는 閉經期 호르몬分泌의 특징이 FSH와 LH의 증가, 특히 FSH의 증가라는 점에서 일치되지 않는다.

GnRH의 경우 天癸가 至하는 14세 前後에搏動性分泌가 점차 시작되며, 이에 의해 FSH와 LH의搏動性分泌를 유도하고, 閉經期에는 그搏動이消失되어 사실상 機能을 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가

장 天癸의 내용과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內分泌學 分野에서 지금까지 연구 발표된 바에 의존한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시행된다면 天癸가 전혀 다른 물질일 수도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호르몬일 수도 있다.

#### IV. 結 論

天癸에 관한 既存의 韓醫學 文獻과 內分泌學上의 月經, 妊娠, 閉經 및 男性의 性週期에 관한 文獻을 살펴본 바 天癸에 關한 자료들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 첫째, 內經에 의하면 天癸는 男女에 모두 存在하며, 生殖能力을 갖게하는 物質로 여성의 初經期에 至하여 閉經期에 竭한다. 둘째, 天癸의 이름은 天真之氣의 天과 壬癸之水의 癸에서 由來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天癸를 月經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後代 醫家들에 의하여 批判되었으며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넷째, 天癸를 陰精이라고 解釋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한결음 더 나아가 妊娠과 月經에 關與하는 內分泌 物質이라고 解釋되고 있다. 다섯째, 天癸를 內分泌 物質 중 FSH라고 한 解釋이 있었는데 이는 內分泌學上 이미 관찰된 사실에 비추어 볼때 다소 무리가 있는 견해이다.

天癸가 內分泌物質로 妊娠과 月經에 필수적이며 男女에 모두 존재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관찰된 내분비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GnRH와 類似하다고 생각된다.

#### V. 參考文獻

1. 金定濟,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p522, 1983
2.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부인과학, 서울, 대한산부인과학회, pp61-68,71,75, 1991
3. 杜鎬京, 東醫腎系學, 서울, pp805-806, 1991
4. 武之望, 濟陰綱目, 서울, 一中社, p1, 1992
5. 閔獻基, 臨床內分泌學, 서울, 고려의학, pp46-48,415-425,441, 1990
6. 宋炳基, 漢方婦人科學, 서울, 杏林出版, pp32

- 34-35, 1986
7. 최영길, 내분비학, 서울, 의학출판사, pp133-136, 525-540, 1994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門,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11, 1981
  9. 申雄浩, 更年期 婦人에서의 Hormone動態, Postgraduate Medical digest. N Vol.5, 1977
  10. 安在榮, 閉經期の 身體的 變化와 治療, 高醫, 7(12):3-9, 1984
  11. 이진용, 폐경의 치료, 대한의학협회지, 35(5): 599-604, 1992
  12. 한인권외, 한국인 갱년기 여성의 골밀도 밀 호 르몬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내분비학회지, 4(1), 1989
  13. 羅元愷, 中醫婦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11-12, 1986
  14. 羅元愷, 中醫婦科學, 知音出版社, pp19-20
  15. 傅山, 女科仙方,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34, 1990
  16. 謝觀, 中國醫學大辭典, 臺北, 商務印書館, p475, 中華民國73년
  17. 上海中醫學院, 婦產科學, 臺北, 商務印書館, pp15-16, 1984
  18. 孫久齡, 婦科證治, 石家庄市, 河北人民出版社, p4, 1983
  19. 蕭埏, 女科經綸, 江蘇科學技術出版社, pp4-5, 35, 1986
  20. 吳謙, 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7, 1982
  21. 劉國普 外, 婦科病飲食療法, 上海, 上海科學普及出版社, p80, 1992
  22. 張景岳, 婦人規, 廣東, 廣東科技出版社, pp25-27, 1986
  23. 陳自明, 婦人良方大全,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卷1pp1-3, 1987
  24. 叢春雨, 女科證治歌括,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109, 1991
  26. 유국방, 女科之腎與衝任, 新中醫, 第4期, 1989